

중국어파 언어 피동문 소고*

박 은 석**

〈目次〉

I. 서론	3. 주어 특징
II. 피동문 특징	4. 행위자 특징
1. 피동 구현 방법	5. 의미 특징
2. 서술어 특징	III. 결론

I. 서론

본고에서는 중국·티베트어족 중 중국어파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피동문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티베트어족의 언어는 크게 중국어파와 티베트·미얀마어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중국 지역 내의 중국·티베트어 중에서 중국어파에 속하는 언어들의 피동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중국·티베트어의 중국어파 언어는 표준 중국어, 각종 중국어 방언들, 그리고 중국어 방언으로 일컬어지지만 티베트·미얀마어파 소수민족 언어와의 접촉을 통해 티베트·미얀마어파의 특징도 지니고 있는 白龙江流域방언(중원관화, 서남관화, 티베트어 캉(Kang)방언 접촉 지역) 등이 있다. 바이어(Bai language, 白語)는 중국어파에 속하는지 아니면 티베트·미얀마어파에 속하는지 아니면 두 어파와 독립된 언어로 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3711).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루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언어이어서 본고의 중국어파 언어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고는 중국어파 언어들의 피동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발간된 중국어파 언어에 관한 참조문법 서적, 학위논문, 소논문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문헌과 언어는 본고에 소개된 것보다 많았지만 검토한 문헌에서 피동문에 대한 유의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언어들만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어파 언어들의 피동을 서로 대조하거나 유형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周士宏(2005), 屈哨兵(2010)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논문은 주로 ‘피동 개사’ 수집과 분석에 치중한 반면 본고에서는 피동 개사 뿐 아니라 피동문의 어순, 피동문의 서술어, 피행위자 주어, 행위자, 피동 의미 분석에도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론 면에서는 Shibatani(1985), Dixon and Akihenvald(2000) 등의 전통적인 피동 유형론도 참고하였지만, 피동문과 피동 요소들의 전형성, 표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 유형론(Canonical Typology)의 관점에서 피동을 연구한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2012)의 피동 분석틀을 주로 사용하였다.

피행위자 주어문은 피동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피동문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본고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고 피동 개사 등의 피동 표지가 있는 언어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같이 논의하였다.

II. 피동문 특징

1. 피동 구현 방법

중국어파 언어들에서 피동문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어순, 둘째,

피동 개사, 셋째, 피행위자 조사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중국어과 언어들은 대부분 피동 개사와 어순을 사용해서 피동문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피행위자 조사를 사용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는 白龙江流域방언 하나만 있었다. 莫超(2004:173-176)¹⁾에 따르면 白龙江流域방언에서는 피행위자가 사물이고 행위자가 사람인 경우는 피행위자 주어문을 사용하고, 피행위자와 행위자가 모두 사람인 경우는 주로 피행위자 조사를 사용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방식은 티베트어 칸(Kang)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白龙江流域방언에서 피동 개사 ‘招’, ‘到’, ‘叫’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중국어과 언어들에서 피동 개사를 사용하는 피동문의 어순을 개괄하면 그 어순은 기본적으로 ‘피행위자+피동개사+행위자+VP’이다. 다음은 赣방언에 속하는 芦溪방언(예1)과 闽南방언에 속하는 海丰방언(예2)의 예이다.

- | | |
|---------------------------|------------------------|
| (1) 五弟着狗咬了。 ²⁾ | (徐荣, 2008:50) |
| (다섯째 동생이 개에게 물렸다.) | |
| (2) 墙科人拆了去。 ³⁾ | (杨必胜·潘家懿·陈建民, 1996:19) |
| (담이 사람에게 의해서 허물어졌다.) | |

芦溪방언인 예문 (1)에서 “五弟(다섯째 동생)”는 피행위자, “着”는 피동 개사, “狗(개)”는 행위자, “咬(물다)”는 동사로 ‘피행위자+피동개사+행위자+VP’의 어순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海丰방언인 예문 (2)에서 “墙(담)”은 피행위자, “科”는 피동 개사, “人(사람)”은 행위자, “拆了去(허물어버리다)”는 동사구로 역시 ‘피행위자+피동개사+행위자+VP’의 어순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莫超, 《白龙江流域汉语方言语法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173-176页.
 2) 徐荣, 《广西北流粤方言语法研究》, 清华大学文学硕士学位论文, 2008, 50页.
 3) 杨必胜·潘家懿·陈建民, 《广东海丰方言研究》, 语文出版社, 1996, 19页.

그런데 타동 강화사 ‘给’⁴⁾를 피동문에 사용하는 언어들도 있다. 예를 들어 王晓军·天家成·马春时(2012:502-503)⁵⁾가 소개한, 中原官话방언에 속하는 蒼山방언에서 가능한 피동문의 네 가지 문장 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1) 피행위자+叫+VP : | 衣服叫划破了。 ⁶⁾
(옷이 급혀서 찢어졌다.) |
| 2) 피행위자+叫+给+VP : | 衣服叫给划破了。 ⁷⁾
(옷이 급혀서 찢어졌다.) |
| 3) 피행위자+叫+행위자+VP : | 衣服叫树枝划破了。 ⁸⁾
(옷이 급혀서 찢어졌다.) |
| 4) 피행위자+叫+행위자+给+VP: | 衣服叫树枝给划破了。 ⁹⁾
(옷이 급혀서 찢어졌다.) |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蒼山방언에서는 피동 개사로 ‘叫’를 사용하며 타동 강화사 ‘给’를 포함하여 총 네 가지의 피동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어과의 언어들은 모두 피동 개사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대상 언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동 개사를 다음 ‘표 1’로 정리하였다.

4) 본고는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동작 동사 앞에서 동작 동사의 타동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给’를 ‘타동 강화사(intensifier)’로 일컫기로 한다.

5) 王晓军·天家成·马春时, 《蒼山方言志》, 齐鲁书社, 2012, 502页.

6) 같은 책, 503页.

7) 같은 책, 503页.

8) 같은 책, 503页.

9) 같은 책, 503页.

〈표 1〉 연구 대상 언어 종류, 언어명, 피동 개사

언어 종류	언어명	사용하는 피동 개사
现代标准汉语	普通话	被, 叫, 让
冀魯官话	沂南方言	叫, 被
中原官话	蒼山方言	叫
中原官话	合阳方言	教
西南官话	常德方言	逗, 是, 叫, 让
西南官话	遵义方言	着
吴	江阴方言	捱
吴	温州方言	‘丐, 勾’
贛	芦溪方言	被, 等
贛	抚州方言	等, 着
贛	鉛山方言	让, 把, 搯, 得
江淮官话/西南官话/贛	鄂东方言	把, 让, 把得, 让得, 把到, 把是
湘	涟源方言	赐, 拿赐
湘	益阳方言	着, 掇, 把得
湘	衡阳方言	得
闽南	海丰方言	科
闽南	澄海方言	乞, 分, 互
闽南	泉州方言	与, 乞
客家	泰兴方言	拿分, 分, 拿给, 遭
粵	广西北流话方言	着, 界
粵	广西平南平山话方言	着, 界
粵	桂平麻垌广西话方言	着, 界
中原官话, 西南官话, 藏语 Kang(康)方言	白龙江流域汉语方言	招, 到, 叫

陈淑梅(2001:147)¹⁰⁾에 따르면 鄂东방언에서 ‘把’는 ‘피동’ 개사로 쓰이기도 하고 ‘处置’ 개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我把他打伤了。¹¹⁾ (陈淑梅, 2001:147)
 (나는 그를 때려서 상처 입혔다. - 处置)
 (나는 그에게 맞아서 상처 입었다. - 被动)
- (4) 小李把他哥哥骂了。¹²⁾ (陈淑梅, 2001:147)
 (샤오리는 그의 오빠(혹은 형)를 욕하였다. - 处置)
 (샤오리는 그의 오빠(혹은 형)에게 욕을 먹었다. - 被动)

鄂东방언에서 위 예문 (3)과 (4)의 ‘把’는 문맥이 없으면 ‘피동’ 개사로 쓰인 것인지, ‘处置’ 개사로 쓰인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周士宏(2005:45)¹³⁾에 따르면 江苏淮阴话에서는 ‘给’가 ‘주다’의 의미의 ‘동사’와 피동 의미의 ‘개사’로 사용되는데, ‘주다’의 의미일 때는 ‘[kəʔ21]’로 읽고 ‘피동’의 의미일 때는 ‘[kɛ11]’로 읽는다고 한다. 즉, 수여동사에서 피동 개사로 품사와 의미가 바뀔 때 모음 음가 변화와 성조 변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西南官话에 속하는 常德방언에서는 피동 개사 중 하나로 ‘是’를 사용한다. 易亚新(2007:213)¹⁴⁾에 따르면 ‘是’는 常德방언에서 ‘동사(즉, 계사)’로도 사용되고 ‘피동 개사’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 (5) 我是他的学生。¹⁵⁾ (易亚新, 2007:213)
 (나는 그의 학생이다.)

10) 陈淑梅, 《鄂东方言语法研究》, 江苏教育出版社, 2001, 147页.

11) 같은 책, 147页.

12) 같은 책, 147页.

13) 周士宏, 〈汉语被动句标志的类型学考察〉, 《汉语学报》, 第3期, 2005, 45页.

14) 易亚新, 《常德方言语法研究》, 学苑出版社, 2007, 213页.

15) 같은 책, 213页.

- (6) 是他帮我交的学费。¹⁶⁾ (易亚新, 2007:213)
 (나의 학비를 내준 것은 그이다.)
 (7) 他是人家骗啊几百块钱去哒。¹⁷⁾ (易亚新, 2007:213)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몇 백원을 날렸다.)
 (8) 东西是他拿走哒一多半走哒。¹⁸⁾ (易亚新, 2007:213)
 (물건은 그에게 절반 이상 가져감을 당했다.(그가 절반 이상의 물건을 가져갔다.))

예 (5)와 예 (6)은 ‘是’가 ‘동사(즉, 계사)’로 쓰인 예문이고 예 (7)과 예 (8)은 ‘피동 개사’로 쓰인 예문이다. 易亚新(2007:213)¹⁹⁾은 피동 개사 ‘是’를 사용한 피동문의 문미에는 꼭 어기사 ‘哒’를 사용하여야 하며 ‘是’가 ‘개사’로서 피동을 나타내는 경우와 ‘동사(즉, 계사)’로서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는 주의해서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 | A | B |
|---|---------------------------------------|
| (9) 门是风吹开哒。
(문이 바람에 의해 불어 열렸다.) | 门是风吹开的。
(문은 바람이 불어서 연 것이다.) |
| (10) 他是他搞恼火哒。
(그가 그에 의해 화가 나게 되었다.) | 他是他搞恼火的。
(그는 그가 화나게 한 것이다.) |
| (11) 他是这一伙人灌醉哒。
(그가 이 사람들에게 의해 취하게 되었다.) | 他是这一伙人灌醉的。
(그는 이 사람들이 취하게 한 것이다.) |
| (12) 墙上是他戳稀烂哒。
(담이 그에게 뚫려서 엉망이 되었다.) | 墙上是他戳稀烂的。
(담은 그가 뚫어서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
| (13) 手上是刀割哒一个口子。
(손이 칼에 베어서 상처가 났다.) | 手上是刀割的一个口子。
(손은 칼이 베어서 상처를 낸 것이다.) |
- (易亚新 2007:213)²⁰⁾

16) 같은 책, 213页.
 17) 같은 책, 213页.
 18) 같은 책, 213页.
 19) 같은 책, 213页.
 20) 같은 책, 213页.

易亚新(2007:213)²¹⁾에 따르면 常德방언 예문 (9-13) A조와 B조에서 A조 ‘是……啞’의 ‘是’는 “피동을 나타내는 개사”이고 B조 ‘是……的’의 ‘是’는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즉, 계사)”라고 한다. 중국어파 언어 중 常德방언에서 제공하는 이 ‘계사’에서 ‘피동 개사’로 변화한 예는 세계 언어 유형론 학계의 피동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언어에서도 계사가 피동의 의미와 관계를 맺게 된 예를 드물지만 찾아볼 수 있다.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2012:166)²²⁾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언어인 쿠베오어(Cubeo language)에서 “피동 구조는 ‘be’가 명사화된 형식으로 형성되며 이 ‘be’는 유정성(animacy)과 수(number)에 있어서 주어와 일치를 이룬다”고 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白龙江流域방언에서는 피동문을 만들 때 피동 개사 ‘招(着的 音變)’, ‘到(着的 音變)’, ‘叫’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피행위자 뒤에 피행위자 조사 ‘啊’ 혹은 ‘啦’를 부가하여 피동문을 만든다고 한다(莫超 2004:173-176)²³⁾.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4) 피행위자+피행위자조사+행위자+VP: 小刘啊小张叫走了。²⁴⁾
 (小刘는 小张에게 불려갔다.)
 (莫超, 2004:174)
- (15) 행위자+피행위자+피행위자조사+VP: 小刘小张啦叫走了。²⁵⁾
 (小张은 小刘에게 불려갔다.)
 (莫超, 2004:174)

예 (14)에서 문두 피행위자 주어 ‘小刘(샤오리-인명)’ 뒤에 피행위자 조

21) 같은 책, 213頁.

22)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 “Passive agents: prototypical vs. canonical passives”. *Canonical Morphology and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66.

23) 莫超, 앞의 책, 173-176頁.

24) 같은 책, 174頁.

25) 같은 책, 174頁.

사 ‘啊’를 부가하여 ‘小刘(샤오리-인명)’가 피행위자임을 나타내었음을 볼 수 있다. 예 (15)에서는 피행위자 ‘小张(샤오장-인명)’이 문두에 위치하지 않았지만 뒤에 피행위자 조사 ‘啦’를 대동함으로써 ‘小张(샤오장-인명)’이 피행위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어파 언어들에서 피동문의 기본 어순은 피행위자가 문두 주어로 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白龙江流域방언처럼 피행위자 조사로 피행위자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 (15)처럼 피행위자가 문두에 출현하지 않고 문두 행위자 뒤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피행위자와 행위자가 피동문 내에서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즉, 어떤 언어에 피행위자 표지 혹은 행위자 표지가 있어서 어느 쪽이 피행위자이고 어느 쪽이 행위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피행위자와 행위자 간 어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어파가 아닌 티베트·미얀마어파 언어의 예를 잠깐 살펴보면 티베트·미얀마어파 언어인 사두어(Sadu, 撒都语)에는 피동문에 행위자 격표지가 출현하기 때문에 피동문에서 피행위자와 행위자 간 어순을 바꿀 수 있다(白碧波·许鲜明·杨艳, 2012:251-252)²⁶⁾.

- (16) wua313 i33 gu55 xə55 tshu55 la33²⁷⁾
 1SG 3SG AGT scold touch.done PFV
 (나는 그에게 욕을 먹었다.)
- (17) i33 gu55 za33 phje55 tshu55²⁸⁾
 3SG.FEM AGT 3SG.MASC cheat touch.done
 (그는 그녀에게 속았다.)
 (白碧波·许鲜明·杨艳, 2012:251-252)

예 (16)²⁹⁾은 사두어 피동문의 일반적인 어순인 ‘피행위자+ 행위자+ 행위

26) 白碧波·许鲜明·杨艳, 《撒都语研究》, 民族出版社, 2012, 251-252页.

27) 같은 책, 251-252页.

28) 같은 책, 251-252页.

자격조사+VP'의 어순이지만, 예문 (17)은 피동문에서 피행위자와 행위자가 서로 위치를 바꾼 '행위자+행위자격조사+피행위자+VP'의 어순이다. 사두어 피동문에 행위자를 표시해줄 수 있는 행위자격조사가 출현하기 때문에 피동문에서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어순을 바꿀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어파 언어들에서 피동 개사 역시 피동문의 행위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피동 개사와 피동 개사의 목적어인 행위자는 피동 개사와 같이 부사구를 이루어 VP를 수식하는 성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행위자와 위치를 바꾸기 위해 행위자가 VP 앞 위치를 벗어나고 개사를 뛰어넘어 문두 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중국·티베트어족 중국어파 언어들 of 피동 구현 방법으로는 '어순', '피동 개사', '피행위자 조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몽·멘어족, 크라·다이어족, 중국·티베트어족의 티베트·미얀마어파 언어들 of 피동 구현 방법과 비교해보면 몽·멘어족과 크라·다이어족 언어들은 주로 피동 개사를 써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피동문의 기본 어순도 '피행위자+피동개사+행위자+VP'로 중국어파 언어들 and 일치한다. 반면에 중국·티베트어족 중 티베트·미얀마어파는 주로 행위자 조사나 피행위자 조사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파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몽·멘어족이나 크라·다이어족의 갈래가 아니라 중국·티베트어족의 갈래로 여겨지고 있는데 피동 구현 방법 면에서 보았을 때는 중국·티베트어족의 티베트·미얀마어파 언어들보다는 몽·멘어족, 크라·다이어족의 언어들 and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술어 특징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2012:158)³⁰)는 피동문 동사의 피동

29) 중국 지역 소수민족 언어 예문에 대한 주석(gloss)은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 주석 규칙과 위키백과에 제시된 문법 범주 표지 목록을 따랐다.

30)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 앞의 책, 158.

표준성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동사 표지가 있는 경우를 형식적인 동사 표지가 없는 경우보다 더 표준적인 것으로, 종합적 동사 표지(접사 사용 등)를 우연적 동사 표지보다 더 표준적인 것으로, 기본 타동사를 기본 자동사보다 더 표준적인 것으로, 동적인(dynamic) 동사를 비-동적 동사보다 더 표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어파 언어들, 즉, 표준 중국어를 비롯한 대다수의 중국어 방언에서는 피동 개사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동사에 형식적인 표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우연적 동사 표지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타동성 면에서는 피동문의 동사로 타동사를 자동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 (18) 他捋老师骂着一顿。³¹⁾ (刘俐李·侯超, 2013:149)
 (그가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 (19) 墙科人拆了去。³²⁾ (杨必胜·潘家懿·陈建民, 1996:19)
 (담이 사람에게 의해서 허물어졌다.)
- (20) 我的手着/按玻璃划破哒。³³⁾ (徐慧, 2001:288)
 (나의 손이 유리에 긁혀서 상처가 났다.)
- (21) 妈, 鸡蛋着偷开了。³⁴⁾ (徐荣, 2008:50)
 (엄마, 달걀을 도둑맞았어요.)
- (22) 碗把渠打破唠。³⁵⁾ (胡松柏·林芝雅, 2008:319)
 (그릇이 그에 의해서 깨져 부서어졌다.)
- (23) 菜逗虫吃哒。³⁶⁾ (易亚新, 2007:212)
 (채소가 벌레에게 먹혔다.)

31) 刘俐李·侯超, 《江阴方言新探》,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13, 149页.

32) 杨必胜·潘家懿·陈建民, 앞의 책, 19页.

33) 徐慧, 《益阳方言语法研究》, 湖南教育出版社, 2001, 288页.

34) 徐荣, 《广西北流粤方言语法研究》, 清华大学文学硕士学位论文, 2008, 50页.

35) 胡松柏·林芝雅, 《铅山方言研究(客赣方言研究系列丛书)》, 文化艺术出版社, 2008, 319页.

36) 易亚新, 앞의 책, 212页.

(24) 病人等別人送進醫院去哩。³⁷⁾ (刘纶鑫, 2008:140)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병원에 들여보내졌다.)

예 (18)은 甯방언에 속하는 江陰방언 피동문에서 타동사, 동적인 동사 “罵(욕하다)”가 피동 동사로 사용된 예이다. 예 (19)는 閩南방언에 속하는 海丰방언 피동문에서 타동사, 동적 동사 “拆(허물다)”가 피동 동사로 사용된 예이다. 예 (20)은 湘방언에 속하는 益阳방언 피동문에서 타동사구, 동적 동사구 “划破(베어서 상처를 내다)”가 피동 동사로 사용된 예이다. 예 (21)은 粵방언에 속하는 广西北流话방언의 피동문에서 타동사구, 동적 동사구 “ 훔쳐가다(偷行)”가 피동 동사구로 사용된 예이다. 예 (22)는 贛방언에 속하는 鉛山방언의 피동문에서 타동사구, 동적 동사구 “打破(때려 부수다)”가 피동 동사구로 사용된 예이다. 예 (23)은 西南官话방언에 속하는 常德방언의 피동문에서 타동사, 동적 동사 “吃(먹다)”가 피동 동사로 사용된 예이다. 예 (24)는 贛방언에 속하는 芦溪방언의 피동문에서 타동사구, 동적 동사구 “送进(들여보내다)”가 피동 동사구로 사용된 예이다. 위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과 언어들에서 피동문에 출현하는 동사는 주로 타동사(구)이면서 동적인 동사(구)들이어서 타동성과 동적인 면에서 대체로 표준적인 피동 서술어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동사가 피동문의 서술어로 출현한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존재하였다. 즉, 湘방언에 속하는 涟源방언에서 자동사가 피동문의 서술어로 출현한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5) 古古雨打打哩也拿賜佢行者來哩。³⁸⁾ (陈晖, 1999:284)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도 그녀에 의해 걸어졌다.)

37) 刘纶鑫, 《芦溪方言研究(客赣方言研究系列丛书)》, 文化艺术出版社, 2008, 140页.

38) 陈晖, 《涟源方言研究》, 湖南教育出版社, 1999, 284页.

예 (25)에서 자동사인 “行(걷다)”이 피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陈暉(1999:284)³⁹⁾에 따르면 이 피동문은 감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도 그녀에 의해서 걸어졌네!’라고 하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파 언어의 대다수의 피동문에서 비-동적 동사보다는 동적인(dynamic) 동사를 사용하였지만 비-동적 동사를 사용한 예들도 간혹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는 피동문에서 동적인 동사를 사용하지만, 심리동사 혹은 인지동사가 출현한 예도 드물지만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常德방언에서는 피동 개사 중 하나로 ‘逗’를 사용하는데, 易亚新(2007:212)⁴⁰⁾에 따르면 ‘逗’ 피동문의 서술어로는 동적 동사(앞의 23번 예문) 외에도 심리동사, 혹은 형용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 (26) 老师几得逗学生喜欢。⁴¹⁾ (易亚新, 2007:212)
 (선생님 몇 명이 학생들에게 좋아함을 받는다.)
 (27) 一讲话就逗人恨。⁴²⁾ (易亚新, 2007:212)
 (한 마디 말로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

예 (26)은 常德방언에서 심리동사인 ‘喜欢’이 피동문의 서술어로 사용된 예이고 예 (27)은 심리동사인 ‘恨’이 피동문의 서술어로 사용된 예이다.

赣방언에 속하는 鉛山방언과 芦溪방언에서는 피동문의 서술어로 동적인 동사 외에도 ‘인지동사’가 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 예이다.

- (28) 这个事不要让别人家晓得。⁴³⁾ (胡松柏·林芝雅, 2008:319)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39) 같은 책, 284页.

40) 易亚新, 앞의 책, 212页.

41) 같은 책, 212页.

42) 같은 책, 212页.

43) 胡松柏·林芝雅, 앞의 책, 319页.

(29) 咋个事都不能等渠晓得哩。⁴⁴⁾ (刘纶鑫, 2008:140)

(어떤 일이든지 그에게 알려지면 안된다.)

예 (28)은 鉛山방언의 예문인데 인지동사 ‘晓得(알다)’가 피동문의 서술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예문 (29)는 芦溪방언의 예문인데 역시 인지동사 ‘晓得(알다)’가 피동문의 서술어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문에서 자동사 혹은 비-동적 동사가 피동문의 서술어로 사용된 비표준적인 예들이 간혹 존재하였지만, 대다수의 피동문에서는 타동사와 동적인 동사가 피동문 서술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타동성과 동적 성격 면에서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문 서술어는 표준적인 피동 서술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⁵⁾

3. 주어 특징

본고에서 중국어파 언어들의 피동문을 수집하고 관찰한 결과 피동문 주어로는 일반적으로 명사 혹은 대사와 같은 명사성 성분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앞의 ‘1. 피동 구현 방법’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어파 언어들의 피동문은 일반적으로 ‘피행위자+피동개사+행위자+VP’의 어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행위자가 피동문 문두 주어 위치에 출현한다. 그리고 명사성 성분의 한정성 면에 있어서 피행위자 문두 주어는 일반적으로 한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2012:158)⁴⁶⁾는 피동 주어의 표준성에

44) 刘纶鑫, 앞의 책, 140页.

45) 본고에서 중국어파 피동문 VP 중 동사 뒤 성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중국어파 언어들에서 피동문의 V로 맨동사(bare verb)를 잘 사용하지 않고 V 뒤에 결과보어, 수량빈어, 결과빈어 등 사건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 많이 출현한다는 점에서 현대 표준 중국어 피동문의 VP 상황과 비슷하다.

대하여 논하면서 피동문에서 외현된 주어가 있는 경우가 외현된 주어가 없는 경우보다 표준적이고, 피행위자 주어가 피행위자가 아닌 주어보다 표준적이며,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피행위자 주어가 부분적으로 책임 있는 피행위자 주어보다 표준적인 피동 주어라고 보았다. 피행위자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발생이 온전히 행위자의 의도와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행위자의 의도와 의지도 관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문에서 문두 주어는 일반적으로 피행위자의 의미 역할을 가진다. 그리고 이 피행위자 주어는 일반적으로 피동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행위자 주어가 생략되기보다는 외현된다.

이상이 중국어파 언어들의 피동문 주어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비전형적, 비표준적 피동문 주어도 관찰되었다. 이 절에서는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문에서 주어의 일반적인 모습과 그 예외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고의 피동문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파 피동문의 주어로는 일반적으로 명사 혹은 대사 등의 명사성 성분이 출현한다. 그러나 주어로 주술 구조가 출현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예 (30)은 鄂东방언의 예이고 예 (31)은 益阳방언의 예이다.

(30) 他捞东西让得人一把看见了。⁴⁷⁾ (陈淑梅, 2001:145)

(그가 물건 훔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

(31) 他偷书着别人看见哒。⁴⁸⁾ (徐慧, 2001:290)

(그가 책 훔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다른 사람이 그가 책 훔치는 것을 보았다.)

46)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 앞의 책, 158.

47) 陈淑梅, 앞의 책, 145页.

48) 徐慧, 앞의 책, 290页.

鄂东방언에서 예문 (30)의 “他捞东西(그가 물건을 훔치다)”와 같이 피동문 주어 자리에 명사성 성분이 아닌 ‘주술 구조’가 출현한 피동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 陈淑梅(2001:145)⁴⁹⁾는 이러한 술어성 성분이 사실은 지칭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는 아니지만 광의의 명사성 성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益阳방언 예문 (31)의 “他偷书(그가 책을 훔치다)”도 역시 ‘주술 구조’이지만 지칭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명사성 성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는 피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장소사, 시간사가 피동문의 문두 주어 자리에 온 경우이다.

- (32) 店門口拿分人家堆满了货物。⁵⁰⁾ (鍾琰媯, 2016:15)
 (상점 입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 화물로 꽉 찼다.)
 =상점 입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 화물로 꽉 차게 됨을 당했다.)
- (33) 整日都拿分你打游戏去了。⁵¹⁾ (鍾琰媯, 2016:15)
 (하루종일이 네가 게임하는데 다 갔다.)

예 (32)는 成都客家방언의 피동문인데 장소사 “店門口(상점 입구)”가 피동문의 주어의 자리에 놓였다. 예 (33) 역시 成都客家방언의 피동문인데 시간사 “整日(하루종일)”이 피동문의 주어 자리에 놓였다. 장소사와 시간사는 일반적으로 피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는 품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예 (32)와 (33)의 피동문에서는 장소사와 시간사가 피동문의 문두 주어 자리에 놓여서 마치 피동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체처럼 은유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한정성 면에서 보면, 중국어파 언어들의 피동문 주어는 대부분 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도 발견되었다. 먼저 피동문 주어가 한

49) 陈淑梅, 앞의 책, 145页.

50) 鍾琰媯, 《成都客象方言的被动句研究》, 四川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6, 15页.

51) 같은 책, 15页.

정적인 성격을 가진 예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4) 小张着人家骂了一餐。⁵²⁾ (付欣晴, 2006:196)
 (샤오장은 사람들에게 한 차례 욕을 먹었다.)
- (35) 那个细妹子等渠外婆接走哩。⁵³⁾ (刘纶鑫, 2008:140)
 (그 소녀는 외할머니에게 인계되어 떠났다.)
- (36) 他把狗咬了。⁵⁴⁾ (陈淑梅, 2001:141)
 (그는 개에게 물렸다.)
- (37) 甲: 你去望睇鸡蛋在嘛?
 (너 가서 달걀 있는지 좀 볼래?)
 乙: 妈, 鸡蛋着偷开了。⁵⁵⁾ (徐荣, 2008:50)
 (엄마, 달걀 도둑맞았어요.)
- (38) 只茶杯打烂了。⁵⁶⁾ (徐荣, 2008:50)
 (그 찻잔이 깨졌다.)

抚州방언 피동문인 예 (34)에서 피동문의 주어로 “小张(샤오장)”이 출현 하였는데 “小张(샤오장)”은 고유명사이므로 한정적인 성격을 가진 주어임을 알 수 있다. 芦溪방언 피동문인 예 (35)에서 “那个细妹子(그 소녀)”는 명사가 지시사와 양사의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성격을 가진 주어임을 알 수 있다. 鄂东방언 피동문인 예 (36)에서 “他(그)”는 지시사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성격을 가진 주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广西北流话방언 예 (37)의 ‘乙’이 말한 피동문에서 “鸡蛋(달걀)”은 맨명사(bare noun)이지만 徐荣(2008:50)⁵⁷⁾에 의하면 의미 면에서 어떤 달걀을 지칭하는지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성분이라고 한다. 또한 예

52) 付欣晴, 《抚州方言研究(客赣方言研究系列丛书)》, 文化艺术出版社, 2006, 196页.

53) 刘纶鑫, 앞의 책, 140页.

54) 陈淑梅, 앞의 책, 141页.

55) 徐荣, 앞의 책, 50页.

56) 같은 책, 50页.

57) 같은 책, 50页.

(38)의 “只茶杯(그 찻잔)”는 ‘一只茶杯(찻잔 한 개)’의 의미가 아니며 한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陈晖(1999:283-284)⁵⁸⁾에 의하면 涟源방언에서는 피동문의 주어로 비한정 주어가 쓰일 수도 있다고 한다.

(39) 一本書拿賜佢看得几个月。⁵⁹⁾ (陈晖 1999:283)

(책 한 권이 그에 의해 몇 달 동안 열람되었다.)

(40) 一餐飯拿賜佢吃得半日。⁶⁰⁾ (陈晖 1999:284)

(밥 한 끼가 그에 의해 만나절 동안 먹혔다.)

涟源방언 피동문인 예 (39)에서는 피동문의 주어로 비한정 명사구인 “一本書(책 한 권)”가, 예 (40)에서는 피동문의 주어로 비한정 명사구인 “一餐飯(밥 한 끼)”이 쓰였다.

넷째, 중국어파 언어들에서 피동문의 주어는 대부분 문장에서 외현하지만 주어가 외현하지 않은 경우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41) 捱灌著一碗酒。⁶¹⁾ (刘俐李·侯超, 2013:149)

(한 사발의 술이 들어부어졌다.)

(42) 古古雨打打哩也拿賜佢行者来哩。⁶²⁾ (陈晖, 1999:284)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도 그녀에 의해 걸어졌다.)

예 (41)은 甯방언에 속하는 江陰방언의 피동문이고 예 (42)는 湘방언에 속하는 涟源방언의 피동문인데 모두 피행위자 주어가 외현하지 않았다.

다섯째,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문에서 피행위자는 일반적으로 문두 주어

58) 陈晖, 앞의 책, 283-284頁.

59) 같은 책, 283頁.

60) 같은 책, 284頁.

61) 刘俐李·侯超, 앞의 책, 149頁.

62) 陈晖, 앞의 책, 284頁.

자리에 위치하지만, 문두 주어 자리에 오지 않고 다른 위치에 출현한 경우도 있었다.

먼저 冀魯官话방언에 속하는 沂南방언의 경우를 살펴보면, 沂南방언 피동문에서 원래는 문두 주어로 출현해야 하는 피행위자가 개사 ‘把’ 뒤에 출현한 문장들이 있었다. 즉, 邵燕梅·刘长锋·邵明武(2010:438)⁶³에 따르면 피동문의 피행위자가 개사 “把”에 이끌려서 행위자의 뒤쪽에 출현하여 “叫+행위자+把+피행위자(+给)+VP了”의 형식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한다.

- (43) a. 枪叫派出所(给)收去了。⁶⁴ (邵燕梅·刘长锋·邵明武, 2010:438)
(총은 파출소에 의해 수거되었다.)
- b. 叫派出所把枪(给)收去了。⁶⁵ (邵燕梅·刘长锋·邵明武, 2010:438)
(파출소에 의해 총이 수거되었다.)
- (44) a. 酒叫我(给)喝光咧。⁶⁶ (邵燕梅·刘长锋·邵明武, 2010:438)
(술은 나에게 의해서 다 마셔졌다.)
- b. 叫我把酒(给)喝光咧。⁶⁷ (邵燕梅·刘长锋·邵明武, 2010:438)
(나에 의해서 술이 다 마셔졌다.)

沂南방언 피동문 예 (43) a와 예 (44) a에서는 피행위자 “枪(총)”, “酒(술)”이 문두에 출현하였는데, 예 (43) b와 예 (44) b에서는 개사 ‘把’의 목적어 자리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예 (43) b와 예 (44) b 문장은 피동 구문과 ‘把’ 구문이 결합된 형식의 문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고의 ‘1. 피동 구현 방법’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어과 언어 중에서 白龙江流域방언에는 피동문에 피행위자를 나타내는 조사가 출현하기 때문에 피동문에서 피행위자 주어가 문두에 위치하지 않고 행위자

63) 邵燕梅·刘长锋·邵明武, 《沂南方言志(山东方言志丛书)》, 齐鲁书社, 2010, 438页.

64) 같은 책, 438页.

65) 같은 책, 438页.

66) 같은 책, 438页.

67) 같은 책, 438页.

뒤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 (45) 小刘啊小张叫走了。⁶⁸⁾ (莫超 2004:174)
 (小刘는 小张에게 불러갔다.)
 (46) 小刘小张啦叫走了。⁶⁹⁾ (莫超 2004:174)
 (小张은 小刘에게 불러갔다.)

예 (45)의 피동문에서는 피행위자 “小刘(샤오리-인명)”가 피행위자 표지 ‘啊’를 대동하고 문두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예 (46)의 피동문에서는 피행위자 “小张(샤오장-인명)”이 피행위자 표지 ‘啦’를 대동하고 문두가 아닌 행위자의 뒤에서 출현하였다. 白龙江流域방언에서 피행위자 조사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와 피행위자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행위자와 행위자 간 위치를 바꿀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파 피동문의 주어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행위자 역할을 하고, 문두에 출현하며, 한정적 명사(혹은 대사) 성분이라는 전형적, 표준적인 피동문 주어의 모습을 보여준다.

4. 행위자 특징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2012:158)⁷⁰⁾는 피동문 행위자(agent)의 표준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외현적이지 않은 경우보다는 외현적인 경우가, 필수적인 외현보다는 외현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의미적으로 행위자가 아닌 경우보다 의미적으로 행위자인 경우가, 비인간인 경우보다는 인간인 경우가, 비특정적인 경우보다는 특정적인 경우가, 대명사적인

68) 莫超, 앞의 책, 174頁.

69) 같은 책, 174頁.

70)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 앞의 책, 158.

경우보다는 어휘적인 경우가, 핵심 표시인 경우보다는 비핵심 표시인 경우가 표준적인 행위자라고 보았다.

본고에서 다룬 중국어과 언어 중 피동 개사의 종류에 따라 피동문 행위자의 외현과 생략 가능성이 달라지는 언어들 이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표준 중국어에서는 피동 개사 ‘被’ 뒤에 출현하는 행위자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피동 개사 ‘叫’, ‘让’ 뒤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생략되지 않고 외현된다. 본고에서 다룬 중국어과 언어 중 객가 방언에 속하는 泰兴방언은 피동 개사 ‘遭’ 뒤에서는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피동 개사 ‘拿分’, ‘分’, ‘拿给’ 뒤에서는 생략이 불가능하여 행위자가 꼭 외현되어야 한다고 한다(兰玉英, 2007:292)⁷¹⁾.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47) 个条树子拿分雷打钻。⁷²⁾
(兰玉英, 2007:293)
- (그 나무는 번개에 맞아 쓰러졌다.)
- (48) 钱都分你使完了, 哪子还有钱? ⁷³⁾
(兰玉英, 2007:293)
- (돈은 모두 너에게 써버림을 당했는데, 어디에 또 돈이 있어?)
- (49) 鱼子拿给猫宫食诶了。⁷⁴⁾
(兰玉英, 2007:293)
- (물고기는 고양이에게 먹혀버렸다.)
- (50) 碗遭打烂诶了。⁷⁵⁾
(兰玉英, 2007:293)
- (그릇이 깨졌다.)

위 泰兴방언 피동문들 중 예 (47)은 피동 개사 ‘拿分’을 사용한 예이고, 예 (48)은 피동 개사 ‘分’을 사용한 예이며 예 (49)는 피동 개사 ‘拿给’을 사용한 예인데 세 예문에서 모두 행위자가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예 (50)은 피동 개사 ‘遭’를 사용한 예인데 행위자가 생략되었다. 앞서 말한

71) 兰玉英, 《泰兴客家方言研究(客赣方言研究系列丛书)》, 文化艺术出版社, 2007, 292页.

72) 같은 책, 293页.

73) 같은 책, 293页.

74) 같은 책, 293页.

75) 같은 책, 293页.

바와 같이 피동 개사 ‘遭’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출현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 예 (50)에서는 행위자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50)의 피동 개사 ‘遭’를 피동 개사 ‘拿分’, ‘分’, 혹은 ‘拿给’로 바꿔 쓸 수 없다.

행위자 생략 가능 언어로는 中原官话방언인 蒼山방언을 들 수 있다. 蒼山방언은 피동 개사로 ‘叫’를 사용하는 방언인데 피동 개사 뒤의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王晓军·天家成·马春时, 2012:502-503)⁷⁶⁾. 그리고 吳방언에 속하는 江陰방언에서도 행위자가 생략된 예문을 찾을 수 있었다.

- (51) 衣服叫划破了。⁷⁷⁾ (王晓军·天家成·马春时, 2012:503)
 (옷이 긁혀서 찢어졌다.)
- (52) 衣服叫给划破了。⁷⁸⁾ (王晓军·天家成·马春时, 2012:503)
 (옷이 긁혀서 찢어졌다.)
- (53) 捱灌著一碗酒。⁷⁹⁾ (刘俐李·侯超, 2013:149)
 (한 사발의 술이 들어부어졌다.)

예 (51)과 예 (52)는 蒼山방언 피동문의 예인데, 예 (51)와 (52)에서 행위자가 생략되었음을 볼 수 있다. 江陰방언 피동문인 예 (53)에서는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모두 생략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고가 다룬 중국어파 언어들 중 피동 개사 뒤의 행위자를 생략할 수 없는 언어들로는 芦溪방언(贛방언), 抚州방언(贛방언), 鉛山방언(贛방언), 鄂东방언(江淮官话/西南官话/贛방언), 涟源방언(湘방언), 益阳방언(湘방언), 常德방언(西南官话방언), 澄海방언(閩南방언) 등을 들 수 있다. 刘纶鑫(2008)에 따르면 芦溪방언(贛방언)은 피동문에서 피동 개사 뒤에 행위자가 반드시 출현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호한 행위자라도 출현시킨다고

76) 王晓军·天家成·马春时, 앞의 책, 503頁.

77) 같은 책, 503頁.

78) 같은 책, 503頁.

79) 刘俐李·侯超, 앞의 책, 149頁.

한다. 그리고 抚州방언 등 많은 언어에서도 피동 개사 뒤에 비한정적인 행위자가 출현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 (54) 渠个衣服等人家撕烂哩, 眼镜也等人踩烂哩。⁸⁰⁾ (刘纶鑫, 2008:140)
 (그의 옷은 사람에게 찢겼고, 안경도 사람에게 밟혀서 망가졌다.)
 (55) 小张着(=等)人家骂了一餐。⁸¹⁾ (付欣晴, 2006:196)
 (샤오장이 다른 사람에게 한바탕 욕을 먹었다.)

芦溪방언 피동문인 예 (54)에서 앞 절의 “人家(다른 사람)”와 뒤 절의 “人(사람)”은 비한정적인 행위자이다. 예 (55)는 抚州방언의 예인데, 抚州방언 역시 피동 개사 뒤의 행위자를 생략할 수 없는 언어이고 예 (55)의 “人家(다른 사람)”는 비한정적인 행위자이다.

행위자의 생명도와 관련해서는 행위자는 피동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명도가 높은 존재가 담당한다. 따라서 중국어과 언어 문헌들에 소개된 피동문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인간’ 행위자이다. 그렇지만 ‘인간’ 행위자 외에도 ‘쥐, 개, 고양이, 돼지’ 등의 ‘동물’ 행위자, ‘바람, 물, 불, 번개, 태양’ 등의 ‘자연’ 행위자, ‘칼, 유리, 노끈’ 등의 ‘사물’ 행위자도 보인다. 다음은 그 예이다.

- (56) 阿荣着老三讲几轮。⁸²⁾ (韦翠萍, 2019:129)
 (아룡이 라오싼에게 몇 번 잔소리를 들었다.)
 (57) 碗把渠打破喽。⁸³⁾ (胡松柏·林芝雅, 2008:319)
 (그릇이 그에 의해서 때려 부수어졌다.)
 (58) 五弟着狗咬了。⁸⁴⁾ (徐荣, 2009:50)
 (다섯째 동생이 개에게 물렸다.)

80) 刘纶鑫, 앞의 책, 140页.

81) 付欣晴, 앞의 책, 196页.

82) 韦翠萍, 《广西平南平山话语法研究》, 广西大学硕士学位论文, 2019, 129页.

83) 胡松柏·林芝雅, 앞의 책, 319页.

84) 徐荣, 앞의 책, 50页.

- (59) 個条树子拿分雷打钻。⁸⁵⁾ (兰玉英, 2007:293)
 (그 나무는 번개에 맞아 쓰러졌다.)
 (60) 我的手着/挨玻璃划破哒。⁸⁶⁾ (徐慧, 2001:288)
 (나의 손이 유리에 긁혀서 상처가 났다.)

예 (56)의 행위자는 “老三(라오싼)”으로 ‘인간’ 행위자이다. 예 (57)의 행위자는 “渠(그)”로 ‘인간’ 행위자이다. 예 (58)의 행위자는 “狗(개)”로 ‘동물’ 행위자이다. ‘동물’ 행위자는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생명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피동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자로 출현할 수 있다. 예 (59)의 행위자는 “雷(번개)”로 ‘자연’ 행위자이다. ‘번개, 바람, 물, 불, 번개, 태양’ 등의 ‘자연’은 피동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동문의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60)의 행위자는 “玻璃(유리)”로 ‘사물’ 행위자이다. ‘유리, 칼, 노끈’ 등의 ‘사물’ 행위자는 피동 사건 발생의 원인 혹은 도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위자의 생명도가 낮을수록 피동 행위자로서의 전형성, 표준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대명사적인 행위자와 어휘적인 행위자 관련해서는 어휘적인 행위자만 출현할 수 있고 대명사적인 행위자는 출현할 수 없다든지 하는 제약이 발견된 중국어파 언어는 없었다.

그리고 행위자의 핵심표시와 비핵심표시 관련해서는 중국어파 피동문들의 행위자는 비핵심으로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파 언어들은 대부분 피동 개사를 사용하여 행위자를 피동 개사의 목적어로 만드는데 능동문에서는 원래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행위자가 피동 개사의 목적어로 자리를 옮기면서 피동 개사와 더불어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구의 일부분이 되므로 핵심 논항에서 비핵심 논항으로 강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白龙江流域방언에서 피행위자 조사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

85) 兰玉英, 앞의 책, 293页.

86) 徐慧, 앞의 책, 288页.

법을 쓴 경우는 능동문에서는 주어 자리에 있던 행위자가 피동문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므로 역시 핵심 위치에서 덜 핵심적인 위치로 강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능동문의 주어 자리에 있던 행위자가 문장의 목적어로 강등되거나 피동 개사의 목적어로 강등되면서 문장 내 어순도 문두에서 피행위자 주어 뒤로 옮겨가는 것은 Shibatani(1985:837)⁸⁷⁾가 말한 “피동 전형”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행위주 비초점화(agent defocusing)”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어파 언어 피동문들에서 행위자는 외현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외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미적으로 행위자인 경우가 많았고, ‘인간’ 행위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한정적인 명사(혹은 대명사) 성분의 행위자인 경우가 많았고, 모두 핵심표시에서 비핵심표시로 강등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체로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행위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의미 특징

지금까지의 피동문 연구들에서 피동문의 의미적 특징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것은 피해 피동(adversative passive) 여부이다.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2012:188)⁸⁸⁾는 일본어 뿐 아니라 중국어, 몽어, 크메리어, 타이어, 베트남어 등 남동 아시아 언어들 전반에서 피해 피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조사한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문들도 대부분이 피해 피동(adversative passive)을 나타냈다. 특히 ‘해를 입다(suffer)’의 의미를 가진 어휘에서 온 피동 개사의 경우 피해 피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客家방언에 속하는 泰兴방언에서 쓰이는 피동 개사 ‘遭’, ‘拿分’, ‘分’, ‘拿给’, 중에서 ‘해를 입다(suffer)’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온 피동 개사 ‘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유쾌하거나 불행한 일에 쓰인다고 한다. 그리고 ‘주

87) Shibatani, M. “Passive and related constructions: A prototype analysis”, *Language* 61.4, 1985, 837.

88)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 앞의 책, 188.

다(give)’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온 ‘拿分, 分, 拿给’의 경우는 불유쾌한 일, 유쾌한 일, 중립적인 일에 모두 쓰인다고 한다(兰玉英, 2007:293)⁸⁹⁾.

- (61) 個条树子遭雷打钻。⁹⁰⁾ (兰玉英, 2007:293)
 (그 그루의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졌다.)
 (62) 莲白白拿分阿根买诶了, 无得了。⁹¹⁾ (兰玉英, 2007:293)
 (양배추는 阿根에게 팔려서, 없게 되었다.)

예 (61)의 경우는 피동 개사 ‘遭’를 사용하였고, ‘그 그루의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졌다’는 피해의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예 (62)는 피동 개사 ‘拿分’을 사용하였는데 ‘양배추가 阿根에게 팔린 일’은 문맥에 따라서 피해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좋은 의미나 중성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粵方言에 속하는 广西北流방언도 피동 개사의 종류에 따라 피동문이 피해 피동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는지, 좋은 의미나 중성적인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한다. 徐荣(2009:50)⁹²⁾에 따르면 广西北流방언에서는 피동 개사로 ‘着’와 ‘界’를 사용하는데 상용되는 것은 ‘着’이고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界’는 ‘着’만큼 상용되지 않지만 중성적인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 (63) 五弟着狗咬了。⁹³⁾ (徐荣, 2009:50)
 (다섯째 동생이 개에게 물렸다.)
 (64) 哎呀, 真系界你估中了。⁹⁴⁾ (徐荣, 2009:50)
 (아이고, 진짜로 너에 의해 알아맞혀졌다.(진짜 네가 맞추었다.))

89) 兰玉英, 앞의 책, 293页.

90) 같은 책, 293页.

91) 같은 책, 293页.

92) 徐荣, 앞의 책, 50页.

93) 같은 책, 50页.

94) 같은 책, 50页.

예 (63)은 피동 개사 ‘着’를 사용하였으며 ‘다섯째 동생이 개에게 물렸다’는 피해의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 (64)는 피동 개사 ‘弄’를 사용하였으며 ‘너에 의해 알아맞히어졌다’는 문맥에 따라서 피해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좋은 의미나 중성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합양방언에서는 피동 개사문 사용과 피행위자 주어문 사용 간 선택이 피해 피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합양방언에서 피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피동 개사문으로 나타낼 수 없고 반드시 피행위자 주어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邢向东·蔡文婷, 2010:339)⁹⁵.

- | | |
|---------------------------|---------------------|
| (65) 碗教打烂咧。 ⁹⁶ | (邢向东·蔡文婷, 2010:339) |
| (그릇이 깨졌다.) | |
| (66) 碗打烂咧。 ⁹⁷ | (邢向东·蔡文婷, 2010:339) |
| (그릇이 깨졌다.) | |
| (67) 馍蒸熟咧。 ⁹⁸ | (邢向东·蔡文婷, 2010:339) |
| (만두가 찌졌다.) | |

예 (65)와 예 (67)은 ‘그릇이 깨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사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 (65)처럼 피동 개사 ‘教’를 사용한 피동 개사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예 (66)처럼 피행위자 주어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예 (67)의 경우 피행위자인 “馍(만두)”의 피영향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두가 찌졌다’라는 사건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양방언에서는 부정적인 사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닐 때는 ‘教’ 피동 개사문을 사용할 수 없고 예 (67)처럼 피

95) 邢向东·蔡文婷, 《合阳方言调查研究》, 中华书局, 2010, 339页.

96) 같은 책, 339页.

97) 같은 책, 339页.

98) 같은 책, 339页.

행위자 주어문만 사용할 수 있다.

常德방언 피동문도 일반적으로는 피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동사를 사용한 피동문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발견되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68) 老师几得逗学生喜欢。⁹⁹⁾ (易亚新, 2007:212)

(선생님 몇 명이 학생들에게 좋아함을 받는다.)

涟源방언 피동문도 피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이 많았지만, 자동사를 사용한 피동문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발견되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69) 古古雨打打哩也拿赐佢行者来哩。¹⁰⁰⁾ (陈晖, 1999:284)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도 그녀에 의해 걸어졌다.)

즉, 중국어파 언어들의 피동문은 주로 피해 피동을 나타내지만 중성적인 의미 혹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문도 간혹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중국 지역 내의 중국·티베트어족 중 티베트·미얀마어파, 몽·멘어족, 크라·다이어족 언어의 피동문 역시 주로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고 중성적인 의미 혹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간혹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 의미 특징과 유사하다.

99) 易亚新, 앞의 책, 212页.

100) 陈晖, 앞의 책, 284页.

Ⅲ. 결론

본고는 중국·티베트어족 중 중국어파 언어들의 피동문 특징을 연구하였다. 피동문의 특징 요소로 피동 구현 방법, 피동문의 서술어, 피행위자 주어, 행위자, 피동 의미 요소를 분석하였다.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 구현 방법으로는 어순, 피동 개사, 피행위자 조사를 볼 수 있었는데, 본고가 조사한 중국어파 언어들은 주로 어순과 피동 개사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중국어파 언어들이 사용하는 피동문 기본 어순은 ‘피행위자+피동개사+행위자+VP’이다. 어순과 피동 개사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어순과 피행위자 조사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는 중원관화, 서남관화, 티베트어 캉(kang)방언의 접촉 지역에 있는 언어인 白龙江流域방언 뿐이었으며 이 언어에서 피행위자 조사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티베트어 캉(kang)방언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파 언어 피동문의 서술어로는 대체로 타동사가 사용되었고 자동사가 사용된 사례는 적었다. 또한 주로 동적인 동사가 사용되었고 심리동사, 인지동사 등의 비-동적 동사가 사용된 사례는 적었다. 따라서 타동성과 동적 성격 면에서 중국어파 피동문의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피동 서술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파 언어 피동문에서 주어는 일반적으로는 피행위자 역할, 문두 출현, 한정적 명사 성분이라는 전형적, 표준적인 피동문 주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전형적, 표준적인 주어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사례는 적었다.

행위자 특징 면에서 볼 때 중국어파 언어 피동문에서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외현하고, 의미적으로 행위자이며, ‘인간’ 행위자이며, 한정적인 명사(혹은 대명사) 성분의 행위자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동문의 행위자는 모두 핵심표시에서 덜 핵심적인 표시로 강등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어파 언어 피동문의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전형적, 표준적인 행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 피동과 관련해서는 중국어파 언어의 피동문에서 중성적인 의미 혹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주로 피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중국어파 언어의 피해 피동 특징은 중국 지역 내에 있는 중국·티베트어족 티베트·미얀마어파, 몽·멘어족, 크라·다이어족 언어들이 보여주는 피해 피동 특징과 유사하다.

< 참고문헌 >

- 白碧波·许鲜明·杨艳, 《撒都语研究》, 民族出版社, 2012.
- 陈晖, 《涟源方言研究》, 湖南教育出版社, 1999.
- 陈淑梅, 《鄂东方言语法研究》, 江苏教育出版社, 2001.
- 付欣晴, 《抚州方言研究(客赣方言研究系列丛书)》, 文化艺术出版社, 2006.
- 胡松柏·林芝雅, 《铅山方言研究(客赣方言研究系列丛书)》, 文化艺术出版社, 2008.
- 兰玉英, 《泰兴客家方言研究(客赣方言研究系列丛书)》, 文化艺术出版社, 2007.
- 林伦仑, 《澄海方言研究》, 汕头大学出版社, 1996.
- 刘俐李·侯超, 《江阴方言新探》,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13.
- 刘纶鑫, 《芦溪方言研究(客赣方言研究系列丛书)》, 文化艺术出版社, 2008.
- 莫超, 《白龙江流域汉语方言语法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 屈哨兵, 《现代汉语被动标记的事实分布及标题类型与表现形式的研究》, 《华南农业大学学报》 第1期, 2010.
- 邵燕梅·刘长锋·邵明武, 《沂南方言志(山东方言志丛书)》, 齐鲁书社, 2010.
- 王晓军·天家成·马春时, 《苍山方言志》, 齐鲁书社, 2012.

- 韦翠萍, 《广西平南平山话语法研究》, 广西大学硕士学位论文, 2019.
- 徐荣, 《广西北流粤方言语法研究》, 清华大学文学硕士学位论文, 2008.
- 刑向东·蔡文婷, 《合阳方言调查研究》, 中华书局, 2010.
- 徐慧, 《益阳方言语法》, 湖南教育出版社, 2010.
- 杨必胜·潘家懿·陈建民, 《广东海丰方言研究》, 语文出版社, 1996.
- 易亚新, 《常德方言语法研究》, 学苑出版社, 2007.
- 郑张尚芳, 《温州方言志》, 中华书局, 2008.
- 钟琰媵, 《成都客象方言的被动句研究》, 四川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6.
- 周士宏, 《汉语被动句标志的类型学考察》, 《汉语学报》, 第3期, 2005.
- Anna Siewierska and Dik Bakker. “Passive agents: prototypical vs. canonical passives”. *Canonical Morphology and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Dixon, R. M. W. and A. Y. Aikhenvald(eds.). “Chapter 1, Introduction”. *Changing valency: Case studies in transi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Shibatani, M. “Passive and related constructions: A prototype analysis”, *Language* 61.4, 1985.

< Abstract >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passive sentences of Sinitic languages. A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passive sentence, the passive implementation method, the predicate, the subject, the agent, and the passive semantic elements were analyzed. As a passive implementation method of Sinitic languages, there are word order, preposition, and patient particle. Most Sinitic languages use word order and preposition

to express the meaning of passive, and there is one language that use word order and patient particle. Transitive verbs and dynamic verbs are generally used as predicates in passive sentences, showing the appearance of canonical passive predicates. The subject usually has the role of an patient, appears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and is a definite noun in passive sentences, showing the appearance of canonical passive subject. Agents are generally manifest, semantically ‘agent’, ‘human’ agents, and definite noun (or pronoun) in passive sentences, and all were downgraded from core argument to non-core argument. Therefore, in general, they show the appearance of canonical passive agent. Regarding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passive, passive sentences in Sinitic languages mainly expressed the adversative meaning.

Key Words : 중국어과 언어(Sinitic languages), 피동(Passives), 피동문(Passive sentences), 피동 구성 요소별 특징(Characteristics of passive components), 중국 지역 언어(Languages in China)